

지난 호에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육체를 경멸한 철학자에 대해 살펴봤었거니와 과연 소크라테스는 어떨을까? 그 역시 '육체란 영혼의 무덤'이라고 하는 피타고라스의 사상에 동조하는 편이었다. 왜냐하면, 지혜를 추구하는 참된 철학자들에게 육체가 방해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의 영혼이 육체적 욕망이나 감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진리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육체에서 생겨난 자녀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젊은 크산티페와 결혼하여 세 아이까지 두었던 소크라테스로서, 자식들을 보살피는 일이 만만치 않음을 뼈저리게 느꼈지 않았을까 싶다.

'세상에 좋은 아버지란 없다.'고 힘주어 말한 사르트르가 보바르 부인과 계약 결혼을 하여 끝내 자식을 낳지 않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 독신으로 평생을 살다가 칸트, 스피노자, 쇼펜하우어를 포함하여 사도 바울도 훑서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성경에는 여자들과 백성을 향해 예수가 충고한 내용이 나온다.

"예수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

### 강성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TV



## 철학자와 자녀(2)

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누가복음) 23장 28절~30절)

자녀를 두지 않는 것이 부모만 편하고 자 하는 것은 아닐 터. 특히 어려운 때에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편이 더 나은 것이라는 계산이 그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험한 꼴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태어나지 않은 편이 더 나은 것이기에 말이다.

그렇다고 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거추

장스러운 집에 불과한 것은 아닐 터.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로 인하여 힘과 위로를 받는다.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그들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의 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壯士)의 수중(手中)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통에 가득한 자는 복 되도다."(시편) 127편)

젊을 때에나 늙을 때에나 자식은 최대의 기쁨이요 자랑거리이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아무

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 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누가복음) 11:13 전반부)

하찮은 미물도 자기 새끼에게만큼은 지극 정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사람인 바에야 두말한 나위가 없다. 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라도 부모는 자식 때문에 힘을 얻는다. 자식 때문에 고단한 삶을 이어간다. 애지중지하는 자식을 위해, 그 자식의 장래를 위해 땀 흘리고 일하며, 어떠한 고통도 달게 받는다. 심지어 '자식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 이미 그는 부모에게 다 주었다.'는 말도 있다. 자식이 커가면서 부리는 재물이나 그들이 제공하는 기쁨 등을 통해 부모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는 뜻이리라. 자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허락된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서 고귀하며, 따라서 끝까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특히 '아이 낳는 일'이 애국이요 효도요 사회에 대한 공헌이 된 오늘날, 제발 많은 자녀들 낳기를!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고

### 예방할 수 있는 위험, 별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 별이 본격적인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며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별집 규모도 커집니다. 또한 말벌의 공격성도 증가하며 이에 따라 별쏘임 사고도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벌의 공격성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색상에 따른 공격성입니다. 말벌은 어두운 색상에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은색(갈색)빨간색(초록색)노란색 순으로 강한 공격성입니다. 둘째, 신체 부위에 따른 공격성입니다. 말벌은 인간의 신체 부위 중 머리 부위에 집중 공격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셋째, 적극적인 방어성 공격입니다. 말벌은 강한 방어 본능으로서 위협을 느끼면 먼저 공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 마리가 쏘면 집단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별 쏘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별과의 접촉을 멀리하는 겁니다.

1. 인적이 드문 야산 출입을 자제합니다.
2. 벌초 작업 수행 전 작업 환경을 먼저 살펴 벌의 존재 유무를 확인합니다.

3. 벌이 있을 시 접근을 멀리하고, 선부터 행동을 삼가야합니다.

또한, 야외 활동 시 말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합니다. 검고 어두운 색 계열 옷보다는 밝은 계열 옷을 착용하고,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별 쏘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벌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해남소방서 소방사 박재용

### 작은 습관이 큰 안전을 지킵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 배터리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집계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27건 발생했으며, 이 중 77%가 전동킥보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배터리 화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어 휴대전화, 노트북, 전동킥보드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거나 과충전, 비인중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현관이나 비상구 등 대피 통로에서는 절대 충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잠잘 때나 외출할 때는 충전을 멈추어야 합니다. 셋째,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이 끝나면 곧바로 플러그를 뽑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배터리가 부풀거나 변색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의 작은 습관 변화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 충전기를 뽑는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조대성

## 독자투고

최근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했다. 숨진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은 모자(母子)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의 인명피해는 주로 연기 흡입이나 화상, 추락(대피 중 사망) 사례가 많다.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화재 사망자의 행

동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피 중 사망하는 경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화재 상황에서는 무리한 대피보다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선 실내에 대기하며 구조요청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자택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승강기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나 자택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염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평상시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피난시

설의 유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인 피난시설은 방화문으로 이뤄져 있는 대피공간과 창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발코니를 통해 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구성된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다.

화재 원인에 따라서 미처 대피할 수도 없어 사망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 일반적인 대피요령을 익혀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가져보자.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한선근

##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음력 7월 10일)

48년생때가 아니면 줄을 서서 기다리자 60년생 넘실넘실 잔치 분위기 에 취해보자 72년생 똑똑한 지만 어지럽어 84년생 든든한 응원원이 날개를 달아준다 96년생 우직하고 성실한 모습만 보여준다.

49년생 비어있던 공간 풍성하게 채워진다 61년생 사사비비 따져도의 리를 지켜내자 73년생 필요한 지출에 지갑을 열어보자 85년생 아슬픈 시도 수입을 내야한다 97년생 어깨맡이 공부합격점을 받아낸다.

50년생 버리고 비워내야 진짜와 만나 62년생 늦깎이 재차 부지런히 따라가자 74년생 근거없는 허세 체면을 구겨야한다 86년생 대체로 민족인 차이를 가져오자 98년생 아다 할수없는 충고를 들어보자.

51년생서 폰짜리 자존심 명예에 묻어내자 63년생 행재나 다름없는 가래에 성공한다 75년생 기쁨과 슬픔 주는 제안을 들어보자 87년생 조직의 실제 입자가 단단해진다 99년생 부끄럽고 개지고 위기 위와 맞서보자.

52년생 언제나 웃음 주는 부름에 나서보자 64년생 통쾌한 승리 전리품도 수북하다 76년생 희망이라는 단어 뚜렷이 보여준다 88년생 침은 법을 배워야원하는 걸 얻는다 100년생 선택의 걸림길 저울질을 더해보자.

53년생 여전히 진행 중 사랑꽃을 피우보자 65년생 새색시 걸음 조신함을 지켜내자 77년생 준비했던 계획 출발선에 서보자 89년생 성급한 속 하 김칫국을 마셔야한다 101년생 용기는 행동 영웅 소리 들어보자.

54년생 미음이 급해도 시간표를 지켜내자 66년생 갑자기 유명세 당연한 결과이다 78년생 크기는 작아도 실속을 챙겨보자 90년생 꿈꿔왔던 건했던 부질을 벗어내다 102년생 최고라는 자부심 밑줄을 그어내자.

55년생 늦었다 했던 시작 속도가 붙어진다 67년생 속삭이는 유혹 거짓이라 단정하자 79년생 적극적인 구애 하라 91년생 혼자만 의기쁨 표정관리 해보자 103년생 스쳐가는 생가 정답을 알아내자.

56년생 의지가 꺾어지면 배가산으로 간다 68년생 고미운 이웃이 급한 불을 꺼준다 80년생 갈해보고 싶은 욕심을 가져보자 92년생 마냥 편했던 사이벽이 만들어진다 104년생 눈치가 보여져도 아끼고 숨겨내자.

57년생 즐거웠던 추억 동심으로 돌아가자 69년생 묻혀있던 숙제 바쁜게 해야한다 81년생 초라해 보여져도 진심이면 통한다 93년생 현실적인 문제 뒷걸음쳐야한다 105년생 깔끔한 미우리로 신임을 얻어내자.

58년생 가슴에 얹혀있던 빚을 갚아내자 70년생 흑과 백이 달라도 머리를 맞대보자 82년생 불만했던 시선 응원으로 돌아온다 94년생 세상의 기운대 이름이 알려진다 106년생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없어야한다.

47년생 세월이 만든 지혜 빛을 발해준다 59년생 어딘지 외로운 친구를 찾아가자 71년생 뜨거운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83년생 쓴소리 모진소리 귀담이 들어보자 95년생 일취월장 승승적품으로 남겨보자.

##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